



# 다자구도 굳힌 제주시갑... 판세 '예측불허'

### 박희수, 전략공천 반발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 민주 "공천 절차따라 진행"... 고정실도 입장 표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최대 격전지인 제주시갑 선거구 유력 주자로 꼽히던 박희수 예비후보가 결국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다자대결구도의 '빅매치'가 펼쳐지게 됐다. 4·15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제주시갑 선거구 변수로 떠오른 박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놓고 정당·후보별 쟁점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또 한명의 야권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미래통합당 고정실 예

비후보가 13일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고 예비후보의 결정에 따라 제주시갑 선거판은 예측불허의 대혼전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략공천에 반발해온 박희수 예비후보는 12일 선거사무소에서 4·15총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젊음을 바쳐

지킨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 이제 무소속의 길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시민후보 박희수'가 새겨진 흰색 자켓을 입고 '무소속 시민후보 박희수의 승리'를 확신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선거에서 서로간 공정하게 경선을 할 기회를 빼앗고, 도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에서 현신하는 것보다 중앙권력에 손 비비면 특혜받고 중앙권력이 지방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마찬가지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전략공천이란 미명 아래 저질러진 낙하산 공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다"고 도 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예비후보의 민주당 탈당 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략공천은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음도 강조했다. 덧붙여 민주당 도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제주시역 총선 및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준을 의결, 최종 확정됐음도 전했다.

한편 12일 현재 제주시갑 선거구 등록된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모두 14명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의회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정민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 "코로나19 대응 4·3추념식 준비 만전을"

### 도의회 4·3특위 도에 주문 추념식 축소 개최 가능성 자율 추모공간 조성 제안

를 위한 격리공간(마스크 착용자만 출입) 확보, 유사시 대처를 위한 행사요원 보건교육 실시 등의 계획을 마련해놓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의 축소 개최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한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안부나 관계기관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정도(추념식 개최)방향이 설정되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2일 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4·3지원과,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재단으로부터 4·3특별법 개정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4·3트라우마센터 운영 계획 등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3·1절 기념식처럼 소규모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기관별 자체 추모 행사와 추모공간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특히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3 72주년 희생자 추념식과 관련 심각상황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도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 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일단 코로나19 대응계획으로 방역대책반 운영을 비롯해 열감지기 설치,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

현학수 국장은 "여야를 떠나서 경제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특별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책적인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은지기자

## 제주 첫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4월 착수해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기능의 보전·회복·정비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도내 도시지역 일일(34.6km)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등과 연계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계획은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도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 제주의 미래 D-33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브리핑

<h3>"제주다운 제주" 조성</h3> <p><b>제주시갑 송재호 예비후보</b></p> <p>더불어민주당 송재호(사진) 예비후보는 12일 &gt;문재인정부 2대 제주 국정과제 완성 &gt;환경·문화·안전 등 지속가능한 제주 &gt;생활·복지 등 '내 삶이 빛나는 제주' 등 '제주다운 제주'를 위한 3대 정책구상을 제시했다.</p> <p>그는 "자연·환경과 공동체문화 등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내는 것이 '제주다운 제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은지기자</p>	<h3>"국책사업 도민합의 명문화"</h3> <p><b>제주시갑 양길현 예비후보</b></p> <p>민생당 양길현(사진) 예비후보는 12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해 어떤 대형 프로젝트도 제주도민의 합의 또는 제주도회의 의결 없이 일방 추진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다.</p> <p>또 "제주의 공유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은 도민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은지기자</p>	<h3>"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h3> <p><b>제주시갑 고병수 예비후보</b></p> <p>정의당 고병수(사진) 예비후보는 12일 코로나19와 관련 "제주와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는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제주에서도 '제주형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그는 "이미 '제주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다"며 "논의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p>	<h3>"제주환경공사 설립 추진"</h3> <p><b>제주시갑 김용철 예비후보</b></p> <p>무소속 김용철(사진) 예비후보는 12일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주환경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김 예비후보는 "제주도의 재활용 쓰레기에 필요한 시설투자와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합작해 제주환경공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은지기자</p>
<h3>"박희수, 용기 있는 결단"</h3> <p><b>제주시갑 임효준 예비후보</b></p> <p>무소속 임효준(사진) 예비후보는 12일 박희수 예비후보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용기 있는 결단에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무소속 후보로서 깊은 동지애를 느낀다"고 밝혔다.</p> <p>다만 지지자에게 잔류를 당부한 것과 관련 "이후 결과에 따라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비춰져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p>	<h3>"잃어버린 보수 표 가져와야"</h3> <p><b>제주시을 김효 예비후보</b></p> <p>미래통합당 김효(사진) 예비후보는 12일 "저만이 잃어버린 보수 표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p> <p>그는 "총선에서 이겨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16년간 제주의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미래통합당 경선 상대인 부상일 후보는 도덕성 문제와 철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은범기자</p>	<h3>"제주소라 판매 다각적 지원"</h3> <p><b>제주시을 부상일 예비후보</b></p> <p>미래통합당 부상일(사진) 예비후보는 12일 "해녀의 주소득원인 제주소라의 소득증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다.</p> <p>부 예비후보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해산물인 소라"라며 "군납의 확대, 요리 콘텐츠 개발, 식품마케팅 등 다각적인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은범기자</p>	<h3>"공공부문 민간위탁 중단을"</h3> <p><b>제주시을 강은주 예비후보</b></p> <p>민중당 강은주(사진) 예비후보는 12일 "상시적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p> <p>그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는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공약했다"며 "하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상시적이고 공공사업 부문인 이들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중단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은범기자</p>

**작지만 소중한 정성! 깨끗한 정치 실현!**

국회의원 오영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191-5508-11  
제주은행 07-01-180288

**예금주**  
국회의원오영훈후원회 (후원회장 인재근)

좋은 정치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세금혜택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 15~25% 세액공제

후원자격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무원, 교원,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후원문의 064-751-2025  
010-9183-2959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19조에 의거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삼도일동) 한라일보사 3층 회의실

**3 안 건 (案件)**  
·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정관 변경의 건

2020년 3월 13일

**주식회사 한라일보사**  
대표이사 이용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新) 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양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